

나옹선사 기념관지구 설계¹⁾

홍광표 · 허상현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Design of Priest Naong's Memorial Area

Hong, Kwang-Pyo · Huh, Sang-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site for this plan is located at the foot of Mt. Unseo at Galcheon-ri, Changsu-myon, Youngdeok-gun. On the site stands Jangyuksa Temple, built by priest Naong in 1355 (in the 4th year of King Gongmin during Koryo Kingdom). The purpose of this plan is to widely publicize and commemorate priest Naong by designing a district centering around the temple. The basic directions of desig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A special Buddhists' pilgrimage and sight-seeing district aimed at commemorating priest Naong will be developed to preserve the historic figure of priest Naong. To this end, a facility will be built to collect, preserve and exhibit materials related with the great priest in order to preserve his legacy and enhance the image of the space.

2) Special functions which are rare in other districts will be introduced to create an image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memorial districts or sight-seeing zones. To this end, the district will be divided into the Jangyuksa Temple area proper and a distinct memorial area, each of which will have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with different functions. On the other hand, the two different areas will be related with each other and complemented by each other. Such planning techniques as articulation and superimposition will be used for a synergistic effect.

3) The plan will accommodate various programs centering around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and at the same time will allow tourists to have various experiences and access to the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to a variety of events.

4) In order to plan such landscapes as shown in the traditional mountain temples, the traditional tectonic forms will be used for the faci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district surrounding Jangyuksa Temple will become a popular sight-seeing destination, and with new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will become a valuable resource to widely publicize the culture of Youngdeok-gun.

Key Words : Priest Naong, Jangyuksa, Buddhists' Pilgrimage, Memorial Districts, Traditional Mountain Temples

I. 서론

21세기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방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관광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본 계획의 사업주체인 영덕군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문혀있던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독특한 지방색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영덕은 정도(正道)가 혼침된 고려 말의 불교계에 습정균혜(習定均慧)와 근수(勤修)·지혜(智慧)로서 성불의 가능성을 보여준 고승 나옹선사가 출생한 지역으로, 지금도 창수면에는 나옹선사가 창건하였다는 장육사가 면면히 법등을 이어가고 있어 불교적 성지로서의 역사적 장소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덕에는 나옹선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역사환경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해서 나옹선사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나옹선사에 대한 기억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다행스럽게도 영덕군에서는 유교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나옹선사 유적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영덕군이 자랑하는 인물인 한국불교의 거목 나옹선사에 대한 선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본 계획은 공민왕 4년(1355) 나옹선사에 의해서 창건된 장육사를 중심으로 나옹선사를 널리 선양하고 기억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II. 대상지 현황

1. 계획의 범위

계획 대상지는 장육사와 접한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116번지 나옹선사 기념관 건립부지 일대이며 계획면적은 약 21,230㎡(4,596평)로서 기념관 부지 20,240㎡(4,296평), 주차장 부지 990㎡(300평), 진입도로 1.8km이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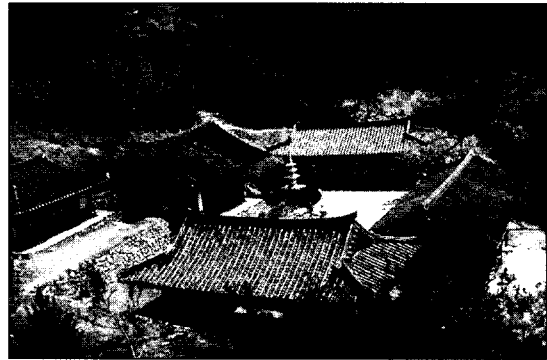


그림 1. 장육사 전경

2. 자연환경분석

계획 대상지가 속해 있는 영덕은 경상북도 동해안의 중앙에 위치한 군으로, 동쪽은 동해안 53km에 접해 있으며, 서쪽은 영양군과 청송군, 남쪽은 포항시, 북쪽은 울진군 및 영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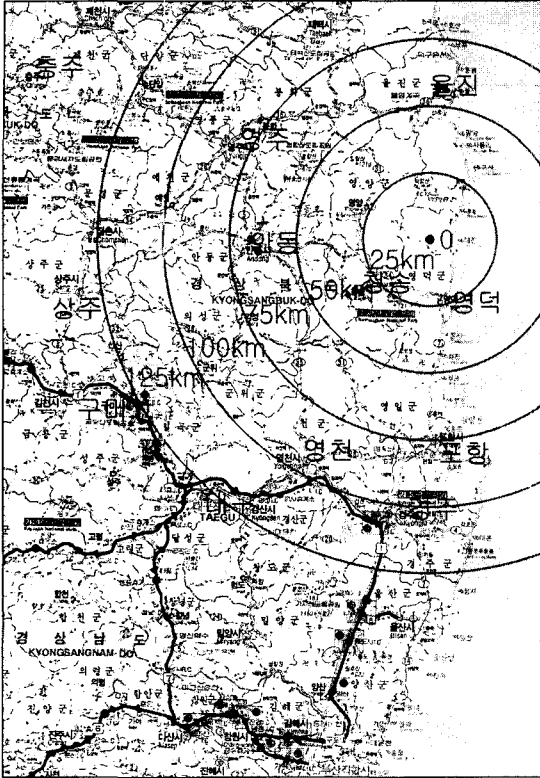


그림 2. 위치도



그림 3. 부지주변 3차원 모델링

계획 대상지는 대부분 표고 120m~125m 사이에 분포함으로써 표고차는 심하지 않으며 지형이 훼손된 부분이 많지 않고, 경사 또한 완만하여 친환경적 개발의 가능성이 높다. 계획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표고

차를 이용하여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보인다. 그러나 남쪽의 산은 북서향을 하고 있어서 태양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일조량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의 토지이용은 대부분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별다른 식생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어 강우에 의해 유수량이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계획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그림 3 참조).

하천과 맞닿아 있는 평탄지는 위요된 경관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발이 예상된다. 대상지 중심에서 바라다볼 때 남에서 북에 이르는 전구간이 열린 경관을 형성하여 가시범위가 넓은 편이다. 하천의 바닥에는 수석이 놓여 있어 흐르는 물과 주변의 소나무 등과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대상지를 감싸고 개설된 도로면이 대상지 보다 높아 대상지 경관이 전체적으로 부감 되므로, 평면적 경관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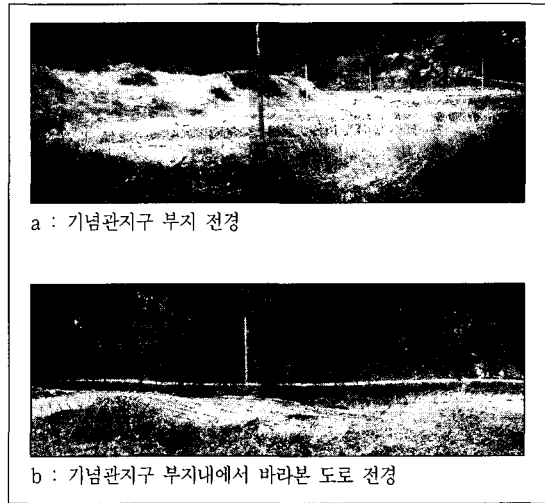


그림 4. 부지 주변 경관

III. 기본방향 및 구상

1. 기본방향

- 1) 나용선사를 선양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

나옹선사를 기리고 선양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성을 지닌 불교순례관광지로 개발하여 나옹선사의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옹선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및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 나옹선사 선양의 의미를 높이고 공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별화되고 특화된 기능의 도입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특화된 기능을 도입하여 기존의 기념관지구 또는 관광지구와는 다른 이미지를 부여하며, 장육사지구와 기념관지구로 양분하여 각 공간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기능을 도입한다.

성격이 다른 두 지역이 서로 적극적으로 상관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분절과 중첩의 계획기법을 통해 효과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한다.

3) 이용자 지향적인 다양한 시설 및 공간의 도입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탐방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적극적으로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경관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

전통산지사찰에서 나타나는 경관감이 재현될 수 있도록 도입시설은 전통적인 양식을 원용하여 계획한다.

2. 개념구상

설계의 주제는 나옹선사의 고고(孤高)한 선사상인 돈오돈수(頓悟頓修), 돈오무심(頓悟無心)의 경계가 구현된 선의 세계를 기본으로 하며 설계의 모티브는 다음과 같다.

1) 수미산구조

수직적 공간구성의 원리로, 불교의 이상향적 세계관인 수미산 구조를 도입하여 공간의 계층적 질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향수해·7 산맥-육계 6천의 세계-색계 18천의 세계-무색계 4천의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의

마디를 이용한다(정각, 1991)(그림 5 참조).

2) 만다라도형

수평적 공간구성의 원리는 원형과 사각형의 중첩을 통하여 외부로 끝없이 확산되고 내부로 수렴되는 만다라도형을 공간에 적용한다. 만다라도형은 $\sqrt{2}$ 배로 확산되고 수렴되는 비례체계를 통해 달성되는 특별한 공간 구조이며, 중심성이 분명한 집정을 의미한다(홍광표, 1997)(그림 6 참조). 여기서 만다라의 manda는 중심·본질·심수(心髓)를 의미, la는 소유를 의미, 결국 만다라란 중심 또는 본질을 얻는다는 뜻으로 밀교가 창출해낸 영역의 공간으로 수평적 상징성을 나타낸다(홍광표,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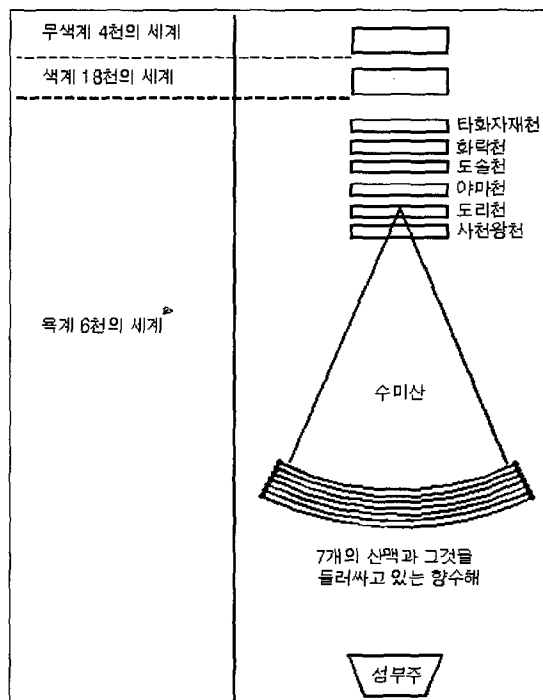


그림 5. 수미산 중심의 세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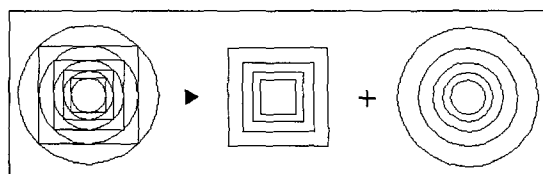


그림 6. 만다라 도형

3) 선찰(禪刹)의 진입체계

• 축선 상에 놓여지는 건축물과 구조물로 다리-삼문(일주문·사천왕문·불이문)-계단·석단-누각-마당-대웅전을 이용하여 뚜렷한 축선을 이루도록 한다(김봉열, 1989)(그림 7 참조).

• 벽, 담, 계단, 석단을 이용하여 잘나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트입과 단함을 연출한다.

• 지성소가 이행의 중점에 놓여지는 중심형구조를 도입한다.

• 문과 누각 안의 어두움과 통과한 후의 밝음을 통한 밝음과 어두움의 상대적 대비를 연출한다.

4) 전통적 구조물

• 다리(홍예교): 홍예에 의해서 생기는 원상(그림 8 참조).

• 12지 열주: 인간에게 친근한 동물의 이미지

• 담장: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높이와 독특한 장식성, 낙산사의 담, 해인사의 담

• 회랑: 공간을 한정하고 위요감을 가져다주는 건축적 요소, 불국사의 회랑

• 계단: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수단

• 석단: 아래와 위의 구분을 위한 수단, 불국사의 석단, 부석사의 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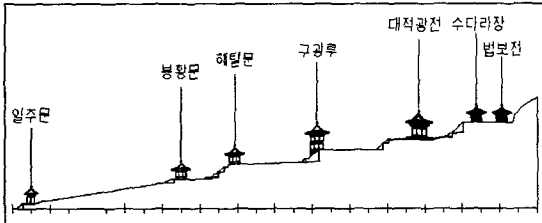


그림 7. 해인사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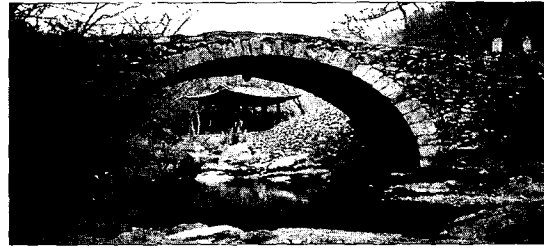


그림 8. 선암사 승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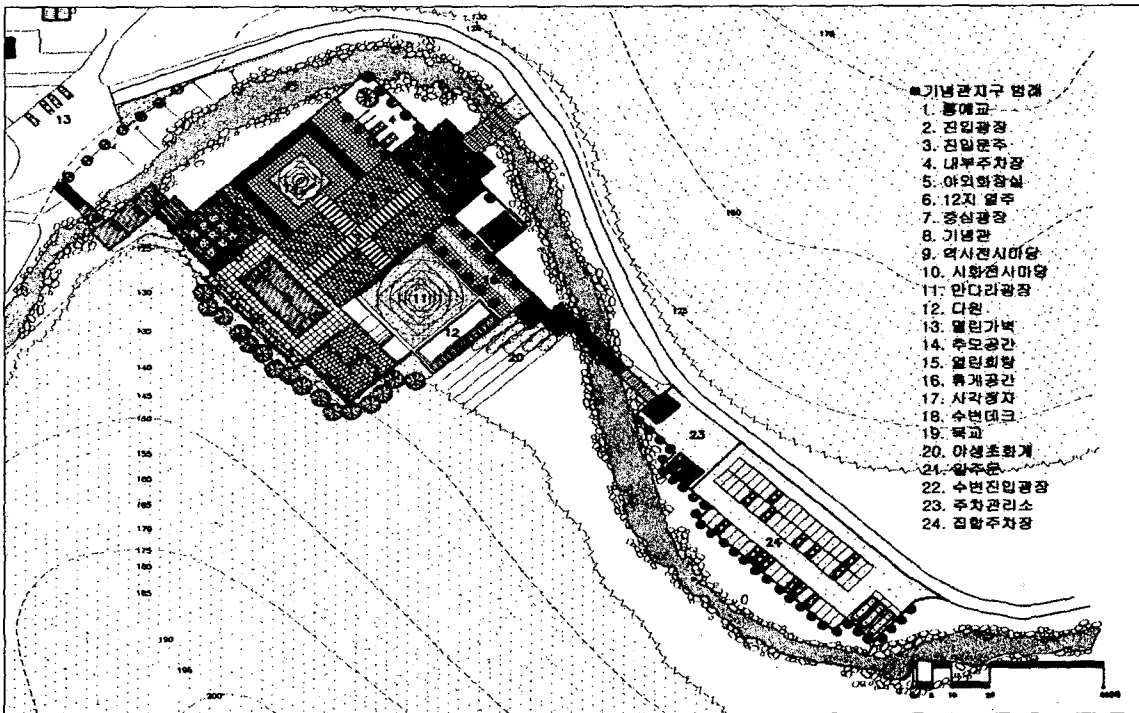


그림 9. 기본계획도

IV. 기본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부지의 현재적 여건을 기회요소로 삼기 위해 전체 부지를 몇 개의 단으로 구분한 후 공간의 위계와 진입 과정에서의 경관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분하며, 수변의 우수한 자연환경과의 질적 이미지를 동질화하기 위해 시설용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존녹지를 최대한으로 보존한다.

• 시설 및 공간 상호간의 분절과 중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고, 전체부지가 주축선과 부축선에 의해 동적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분한다.

• 토지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및 공간을 모으고 나머지 부지는 자연환경을 재생하여 친환경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그림 9 참조).

2. 부지조성계획

• 부지조성은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되 훼손된 지형에 대해서는 원지형에 바탕을 두고 지형을 회복하여 본래적 경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계획부지의 원지형이 가진 고저차를 이용한 시설 배치로 부지조성비를 최소화하며, 경사면을 처리하기 위한 석단의 조성, 계단의 처리, 식재를 통한 경사면 처리 등은 전통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가까이 있는 장육사의 경관과 동질성을 가지도록 한다. 구배는 가급적 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하게 옹벽을 설치할 경우는 자연석 돌쌓기로 계획한다.

3. 동선계획

• 공간의 구조적 결속과 상징적 의미부여를 위해 도입한 축선과 움직임의 동선을 동일하게 하여 공간

의 인식도를 높인다.

• 지구내의 동선은 보행동선 위주로 계획하며, 서비스 및 관리자의 이용을 위해 부분적으로 차량동선을 마련한다.

• 진입광장에서부터 기념관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공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에 계기성(sequence)을 부여한다.

4. 건축물 및 시설물 배치계획

• 단위시설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시설별 공간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식성, 조망성 등 시각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을 집중 배치하여 개발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향후 또 다른 기능의 도입을 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둔다.

• 주요 활동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건축물과 시설물을 배치한다.

• 나용선사 추모공간의 중심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축을 설정하고, 그 축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을 배치한다.

• 시설물은 주변환경과 형태, 색채, 질감 등이 상호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시설규모는 자연지형과의 조화는 물론 본 계획 대상지 수용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적 이용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그림 10, 11 참조).

5. 식재계획

• 주변 자연식생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종과 식재방법을 선택한다.

• 시설이 우세한 지역에는 그 공간의 용도와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식재를 유도한다.

• 기존식생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량한 식생지역은 보완식재를 하여 자연경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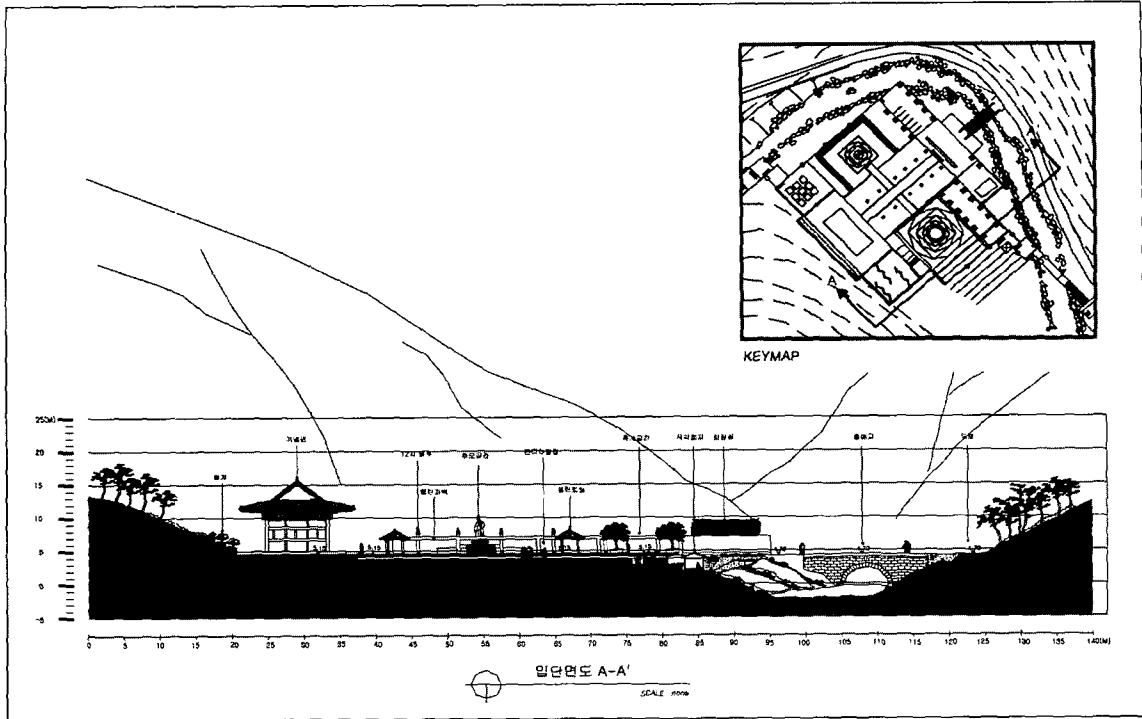


그림 10. 입단면도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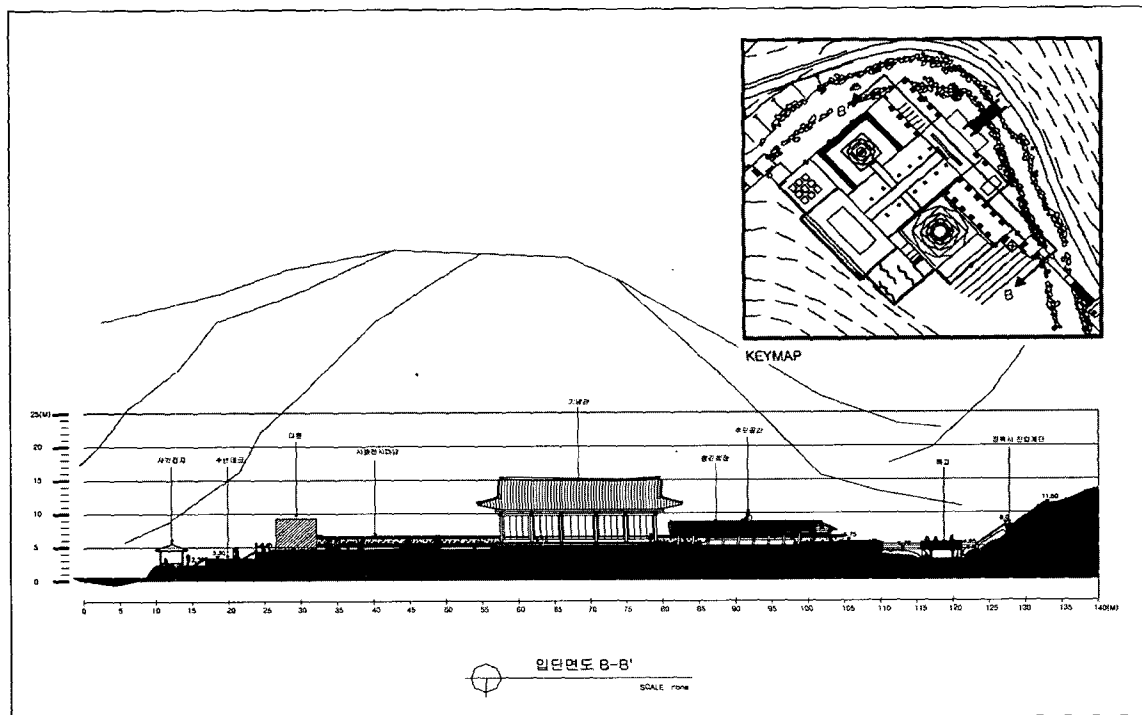


그림 11. 입단면도 B-B'

6. 포장계획

- 공간의 성격이나 기능, 이용자의 이용빈도, 동선의 종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포장의 문양이나 색상을 이용하여 포장면이 상징적 요소가 되도록 조성한다.
- 이동공간과 체류공간 즉, 동선과 광장의 공간구분을 포장재료의 색상이나 질감을 통하여 표현한다.
- 건물과 시설물의 평면적 배경이 되어 각 공간의 시각적, 공간적 분위기를 부각시킨다.
- 자연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V. 공간별 세부계획

1. 기념관 및 중심광장

- 나옹선사를 선양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공간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정형적인 공간의 형태를 도입한다.
- 기념관이 기능적 중심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축의 중점에 건물을 배치한다.
- 주축선에 직교하게 나옹선사 추모공간을 배치하여 광장에서의 연결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용의 범위를 극대화한다.
- 기념관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심광장의 형태는 주축선에 평행하게 긴 직사각형 형태로 하며, 12지 열주를 설치하여 동선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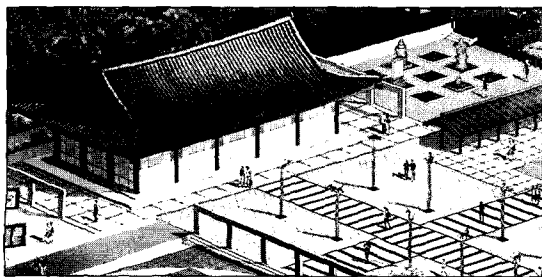


그림 12. 기념관 및 중심광장

- 중심광장의 경계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공간감을 극대화한다.
- 중심광장의 경계에 설치된 가벽에는 일정한 너이로 길게 구멍을 뚫어 외부경관의 가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그림 12 참조).

2. 나옹선사 추모공간

- 장육사를 배경으로 하는 장소에 배치하여 나옹선사 선양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 진입광장에서 추모공간에 이르기까지의 수평거리와 수직적인 높이를 고려하여 조상의 높이를 결정한다.
- 추모공간 외곽부에 회랑을 설치하여 전천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용객이 편하게 나옹선사를 친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추모공간의 평면적 형태는 만다라도형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하며, 만다라도형의 중심에 나옹선사의 석상이 서도록 하여 형식과 내용 모두의 중심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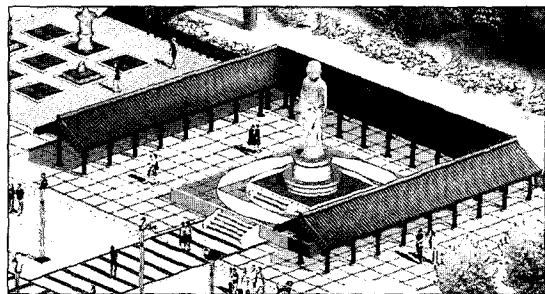


그림 13. 나옹선사 추모공간

3. 만다라광장

- 만다라광장은 만다라도형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여 설계한다.
- 자연지형에 맞추어 중심광장보다 낮게 처리함으로써 공간의 계층적 질서를 느끼게 한다.
- 중심광장과 접합되는 부분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두 기능의 상충을 방지한다.
-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전통

찾집, 기념품판매점 등이 시설된 현대적 개념의 다원건물을 광장 남쪽에 도입한다.

• 광장은 다목적 기능을 가진 야외행사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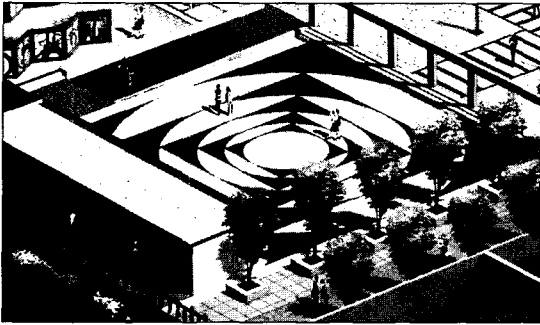


그림 14. 만다라 광장

4. 진입광장

• 진입하는 사람들이 입구성을 느낄 수 있도록 문주를 도입한다.

• 광장 남쪽에 야외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 광장 북쪽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비상시나 관리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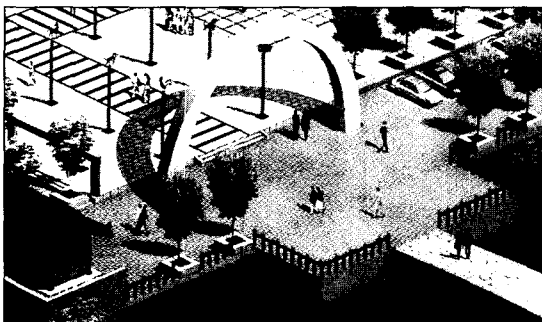


그림 15. 진입광장

5. 전시마당

• 나옹선사에 관련된 조형물인 다층전탑, 석탑, 부도 등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하는 역사전시마당과 시

화전이나 특별전시 기능을 갖춘 시화전시마당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역사전시마당과 시화전시마당은 기념관을 중심으로 양쪽에 위치하여 공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열린 가벽을 세워 유기적인 흐름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간감을 부여한다.

• 중심광장과 상관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전시마당

6. 휴게공간

• 진입광장에서 만다라광장으로 연결되는 장소에 식재플랜트를 이용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휴게공간을 통해 만다라광장과 수변데크, 다원으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한다.

• 이용자의 편의와 미적 경관 요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 이용자들의 행태에 적합한 기능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배치한다.

7. 수변데크

• 데크를 통해서 수변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사각정자를 세워 휴식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기존 수계가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다른 시설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끔 시설을 배치하며, 일주문을 통한 교리적 접근을 유도한다(그림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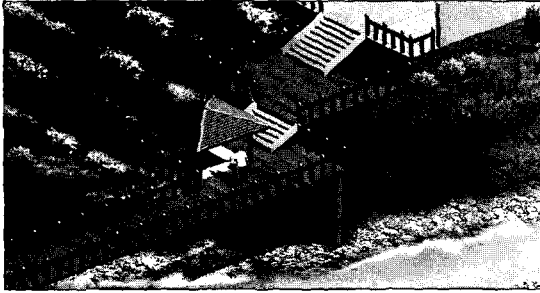


그림 17. 수변데크

VI. 결론

본 계획은 영덕이 낳은 불교계의 큰 스승이신 나용선사의 업적을 추모하고 선양할 수 있는 기념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나용선사가 창건한 장육사를 정비하여 고찰로서의 면모를 되살리고 그 주변지역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나용선사를 추모하고 선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도로를 정비하여 원활한 접근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본 계획의 주된 정신은 나용선사에 대한 추모와 선양이므로 그러한 정신이 물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며, 계획대상지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곳이 불교적 성지로 조성됨을 감안할 때 불교적 의미를 내용으로 하여 표현될 수 있도록 했다.

본 계획이 고찰 장육사와 새로운 개념의 기념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두 개의 전혀 다른 공간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서로 합치되

어 나용선사를 추모하고 선양하기 위한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간적 성격이 부여되도록 노력했으며, 참배객과 관광객의 이용행태를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질적 수준이 높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장소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관광객 지향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휴식과 정서생활의 함양 및 자긍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에 있어서 집단간의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고,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 환경이 기존의 자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장육사를 중심으로 하는 본 계획의 대상지 일대는 새로운 역사문화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영덕군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주1. 편집자 주: 이 설계작품은 영덕군으로부터 2001년 12에 위탁받아 2002년 2월까지 완성하여, 현재 시공 중입니다.

인용문헌

1. 김봉열(1989)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 정각(1991) 가람, 절을 찾아서. 서울: 산방.
3. 홍광표(1991) 신라사찰의 공간형성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4. 홍광표(1997) 불국사의 공간형식에 내재된 조형적 의미. 신라문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18.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원고접수: 2002년 08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2년 10월 19일

한국조경학회지 조경작품평가기준 제4조에 의거하여 심사됨